

**The Gospel of Mark**

Sermon 70 – Sermon Notes

Title: “Facing Pilate”

Scripture: Mark 15:1-15

Date preached: February 18<sup>th</sup> 2024**Scripture: Mark 15:1-15**

**1** Immediately, in the morning, the chief priests held a consultation with the elders and scribes and the whole council; and they bound Jesus, led *Him* away, and delivered *Him* to Pilate. **2** Then Pilate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He answered and said to him, “*It is as you say.*”

**3** And the chief priests accused Him of many things, but He answered nothing. **4** Then Pilate asked Him again, saying, “Do You answer nothing? See how many things they testify against You!” **5** But Jesus still answered nothing, so that Pilate marvelled.

**6** Now at the feast he was accustomed to releasing one prisoner to them, whomever they requested. **7** And there was one named Barabbas, *who was* chained with his fellow rebels; they had committed murder in the rebellion. **8** Then the multitude, crying aloud, began to ask *him to do* just as he had always done for them. **9** But Pilate answered them, saying,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the King of the Jews?” **10** For he knew that the chief priests had handed Him over because of envy.

**11**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so that he should rather release Barabbas to them. **12** Pilate answered and said to them again, “What then do you want me to do *with Him* whom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13** So they cried out again, “Crucify Him!”

**14** Then Pilate said to them,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cried out all the more, “Crucify Him!”

**15** So Pilate, wanting to gratify the crowd, released Barabbas to them; and he delivered Jesus, after he had scourged *Him*, to be crucified.

1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한 후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3 대제사장들이 갖가지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하자 4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변명도 없는가?” 하고 물었다. 5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6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7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 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8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이렇게 묻은 것이다.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였다. 12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찌란 말이오?” 13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4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었다.

**Review**

Before we turn our attention 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Last time we looked in some detail at one of the tragic personal events portrayed in Mark's gospel. I am of course referring to Peter's denial of Jesus. As we know Jesus had predicted that this rejection would occur back in verse 30 of chapter 14. On that occasion Peter strongly objected and said that even if all the others abandoned Christ he would not. As we saw it was the Lord Jesus, and not Peter who was right.

The three denials took place late on the Thursday night or early on the Friday morning of Passion week. As we noted before the Jewish leaders were in a great hurry to finish Jesus' trial so that they could execute Him before the Sabbath began at sunset on Friday. Jesus first went before the former High Priest Annas. He was then taken to the residence of the current High Priest Caiaphas. Waiting at his house ready for this fake trial were members of the Sanhedrin council. This as we noted was very irregular. Trials were not supposed to take place at night. They were also not supposed to take place outside of the official meeting place of the Sanhedrin. The same rules apply today. Legal proceedings take place in an official courtroom. We don't allow legal rulings, unless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be made in coffee shops, banks or judges living rooms!

It is whilst Jesus is being tried that Peter denies Him three times. It was a cold night. A fire had been lit in the courtyard. The house servants and probably some of the soldiers who escorted Jesus were warming themselves. Peter too decides to join them. There is I suppose little he can do at this time except wait. Whilst he's waiting he might as well be comfortable. It's as he's sitting by the fire keeping warm that a servant girl looks at him closely. She thinks she recognises him. In fact, she's sure that she's seen him and Jesus together. This of course was highly possible. Jesus was a well known public figure who was often seen preaching and teaching in the temple area. Peter as a loyal follower was always by His side. However when challenged as being an associate of Jesus Peter claimed to neither know or understand what she was saying. What a shocking admission. Now we should say in Peter's defence that he was surrounded by people who were his enemies. Clearly he was fearful about what would happen to him if he openly admitted being a follower of Christ. He might himself be arrested and put on trial

A little while later another serving girl sees Peter. She also thinks he looks familiar. He looks like one of Jesus' followers. On this occasion she doesn't ask Peter directly, but she points him out to those in the vicinity of the fire. He's one of those who followed Jesus. Being identified by her in this way clearly alarms Peter. He once again denies knowing or being associated with Jesus.

It is about an hour later that the third and final denial takes place. Once again Peter is asked if he knows or follows Christ. On this occasion the bystanders have picked up on his Galilean accent or dialect. It's too much of a coincidence they think that a Galilean rabbi is being tried inside and another Galilean is outside, and they not know each other. Peter here gives his most forceful denial yet. He asks that God curse him if he is lying as he lies about not knowing the Lord Jesus. It is at this point that the rooster crows for the second time. We are also told by Luke that at this moment Jesus looked directly at Peter (Luke 22:61). Peter realised what he'd done.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He had done what he had adamantly sworn he would never do; reject Jesus.

Today we will look at the next phase of trials faced by the Lord Jesus.

오늘의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 마가복음에 기록된 비극적인 개인적 사건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14 장 30 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버리더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옳으셨습니다.

세 번의 부인은 목요일 늦은 밤 아니면 고난 주간의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금요일 해질녘에 시작되는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서둘렀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이 거짓 재판을 위해 그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재판은 밤에 열리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산헤드린의 공식 모임 장소 밖에서 열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적 절차는 공식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커피숍, 은행, 판사 거실에서 내려지는 법적 판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불이 피워졌습니다. 집 하인들과 아마도 예수를 데려왔던 군인들 중 몇 사람도 몸을 녹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터도 그들과 합류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좀 따뜻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불 옆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을 때 하녀가 그를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녀는 그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녀는 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지역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추종자인 베드로는 항상 그분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료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언사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봅니다. 그녀 또한 그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베드로에게 직접 묻지 않고 불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를 알립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원이 알려지자 베드로는 분명히 경계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수를 아는 것과 그와 관련된 것을 부인합니다.

약 한 시간 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인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거나 따르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구경꾼들이 그의 갈릴리 말투를 알아차렸습니다. 갈릴리 랍비가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갈릴리 사람은 밖에 있는데 그들이 서로 모른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가장 강력한 부인을 합니다. 자기가 주 예수님을 아는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실 거라고 맹세합니다. 이때 수탉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누가는 이 순간 예수께서 베드로를 응시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누가복음 22:61). 피터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던 일,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이 직면하신 다음 단계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1 Immediately, in the morning, the chief priests held a consultation with the elders and scribes and the whole council; and they bound Jesus, led *Him* away, and delivered *Him* to Pilate.**

We pick up the narrative very early on the Friday morning of Passion week. Today we refer to this day as “Good Friday” because we recognise that God’s wonderful plan of salvation was

accomplished on this day. However as we shall see the injustice and horror inflicted upon our lord and saviour was anything but good.

1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한 후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고난 주간의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날을 “성금요일 Good Friday”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에게 가해진 불의와 공포는 전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Friday, April 15, 30 AD (1:00am-1:30am)	Confrontation in Garden and Jesus' Arrest
Friday, April 15, 30 AD (1:30am-3:00am) <i>Annas</i> was a former high priest, but the thing that gave <i>Annas</i> power was his political and financial connections. <i>Annas</i> owned concession to sell animals for sacrifice and owned the right for the money exchange. Jesus attacked his income.	<i>Trial 1: Annas (ann' us)</i> , former Jewish High Priest for 16 years - Jesus receives initial physical abuse <i>Trial 2: Current Jewish High Priest, Caiaphas (kā'a-fəs)</i> , and the Sanhedrin Court – Jesus bloodied by abuse ( <i>Trial 2: What can we find wrong?</i> )
Friday, April 15, 30 AD (3:00am-5:00am)	Imprisonment at <i>Caiaphas'</i> palace
Friday, April 15, 30 AD (5:00am-6:00am) Held in daytime, so it was the “official” one. This one had “official” questions!	<i>Trial 3: All the Jewish elders</i> , including the <i>High Priest, scribes</i> and <i>whole Sanhedrin</i> . They decide to ask the Roman government to kill Jesus
Friday, April 15, 30 AD (6:00am-7:00am) “Concerned about the civil law.”	<i>Trial 4: Hearing before Roman governor Pilate</i> , who declares, “I find no guilt in this man.”
Friday, April 15, 30 AD (7:00-7:30am) Herod didn't care what the priests and scribes said about Jesus, he just didn't see any relevance in Jesus' at all.	<i>Trial 5: Hearing before Herod Antipas (an ti' pas)</i> , the son of Herod the Great, who had jurisdiction over Galilee. Jesus refused to answer any questions so Herod returned him quickly to Pilate
Friday, April 15, 30 AD (7:30am-8:30am) This trial is the <i>trial of compromise</i> and <i>of fear</i> . Pilate was terrified that Jesus really was God, but he was more afraid of Caesar.	<i>Trial 6: Pilate</i> repeatedly tried to release Jesus but the Jewish leaders continued to object. Pilate physically tortured and beat Jesus beyond recognition seeking to satisfy the Jewish leaders. However the <i>Jews demanded that Jesus be crucified</i> . Pilate resisted but eventually gave the order to execute Jesus

Again the Jewish Sanhedrin council is called to meet and decide what to do about the “Jesus problem.” It is probably around 5:00 am and following the last trial which perhaps took place between 2-3 am the Lord Jesus has been imprisoned at Caiaphas' residence. Why we might wonder was it necessary to have the trial so early in the morning. It was necessary because Roman officials held their trials in the early morning between 6-9 am. They liked to get the day's business done early before it got hot. If the Sanhedrin waited until later in the day Pilate would not be available. They wanted to get Jesus executed before the Sabbath begins, so they needed to move fast.

At the last trial the Sanhedrin found Jesus guilty of breaking the Mosaic Law. In their eyes He was guilty of blasphemy, of claiming to be God. This offence under Jewish law meant He could legally be stoned to death (Lev 24). However since Judea had become a Roman province in 6 BC Jews were not permitted to carry out capital punishment.

Now you might raise an objection here. Didn't the Jews stone Stephen to death in Acts chapter 7? Yes, they did but this was a “mob act.” It was not the result of a fair legal process. The Jews had no legal right to execution.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concoct charges that would convince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to have Jesus executed.

So the council comes together to devise a plan. It not a fair hearing of course because they had

already determined Jesus' guilt. They will charge Jesus with treason against the Roman government. The Lord Jesus is bound and led away to Pilate.

The Roman governor usually resided at Caesarea Maritima, but it was his custom to be in Jerusalem each year for the feast. His presence in the city pleased some of the Jews,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it meant he could be on hand if any problems arose among the thousands of people crowded into Jerusalem. Civil unrest was always a potential issue during festivals. Let me say a few things about one of the bibles' great villains; Pontius Pilate.


유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어 “예수 문제”를 어떻게 할 지 결정합니다. 이 때가 오전 5 시쯤 되었을 것이며 아마도 새벽 2-3 시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재판 이후에 예수께서는 가야바의 집에 투옥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재판을 받아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이른 아침 6~9 시에 재판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워지기 전에 하루의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헤드린이 그날 늦게까지 기다렸다면 빌라도는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처형하려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산헤드린은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분이 신성모독죄,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레위기 24 장). 그러나 기원전 6년 유대가 로마의 속주가 된 이후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도 행위"였습니다. 공정한 법적 절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형할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도록 설득할만한 혐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함께 모여 계책을 꾸밉니다. 물론 그것은 공평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결박되어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로마 총독은 대개 가이사라 마리티마에 거주했지만, 매년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그의 관례였습니다. 그 도시에 그의 존재가 일부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시민 동요는 축제 기간 동안 항상 잠재적인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 중 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n truth if Pontius Pilate had not been Roman governor at this time he would most likely have vanished into history. No one would remember this rather insignificant provincial ruler. We know very little of Pilate's background. And outside of the four Gospels, Pontius Pilate is mentioned only briefly by Tacitus, Philo, and Josephus. We do however have some interesting archaeological evidence for him. In 1961 the "Pilate Stone," was discovered and dated to around 30 AD. The stone includes a description of Pontius Pilate and mentions him as "prefect" of Judea. But aside from this he remains something of a mystery.

The records we have say almost nothing about Pilate's life before he became prefect of Judea, or after he was recalled to Rome. So what do we know about him? We know that he was the fifth governor of the Roman province of Judea. He was governor under the Roman emperor Tiberius and that he governed from 26 to 37 AD. We also know from his actions that he had no great love for the Jewish people.

Let us find out what happens when Pilate and Jesus meet.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 로마 총독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하찮은 지방 통치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배경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복음서 외에 본디오 빌라도는 타키투스, 필로, 요세푸스에 의해서만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에 "빌라도의 돌 Pilate Stone"이 발견되었는데 서기 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 외에는 그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기 전이나 로마로 소환된 후의 생애에 대해 언급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로마 유대 지방의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총독을 역임했고, 서기 26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을 통해 볼 때 그가 유대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께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시다.

## **2 Then Pilate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He answered and said to him, "It is as you say."**

**3 And the chief priests accused Him of many things, but He answered nothing. 4 Then Pilate asked Him again, saying, "Do You answer nothing? See how many things they testify against You!" 5 But Jesus still answered nothing, so that Pilate marveled.**

We move on now to the first stage of the civil trials that Jesus will face. This includes trials 4 to 6. There is actually some debate about where this particular trial took place. When Pilate visited Jerusalem from his provincial capital of Caesarea he had a couple of different places in which to stay. He could stay in either Herod the Great's palace, located on the north-west corner of the city, or in the Antonia Fortress located next to the temple. So this trial may have been held in either of these venues.

Pilates' first question here is based on the claims that the Sanhedrin have made about Jesus, he asks,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The Jewish rulers were not stupid. If they brought Jesus to Pilate and said that He had claimed to be a god how would Pilate respond? Probably with a dismissive wave of the hand. As a Roman he embraced the concept of there being many gods, so what was one more. However if they brought Jesus before Pilate as **"the King of the Jews,"** Pilate would have to

take the charge seriously. This was because Jesus was a potential political threat. In the Roman Empire there could be no king except Caesar. Pilate was employed as Caesar's representative, so he had to take this information seriously. Jesus was after all being accused of treason!

Jesus's answer to Pilate is curt and to the point. He is the king of the Jews but not in a military or political sense. This is why He said "yes" to Pilate's question, but "yes" with a reservation, **It is as you say**. It is also why He said nothing to the further accusations against Him, as we read, **the chief priests accused Him of many things, but He answered nothing**. If Jesus had answered with a plain "yes" to Pilate's question, Pilate would have immediately declared Jesus guilty of treason against Rome. Because Jesus gave a qualified "yes," it merited further examination. John in his gospel wrote that Pilate discussed the nature of Jesus' kingship with Him further. He even very significantly concluded that Jesus was not guilty of treason (John 18:34-38). He posed no serious political or military threat to the emperor.

At this point, perhaps seeing that Pilate is unconvinced by their claims the Jewish leaders accuse Jesus of additional offences. Luke (23:2) tells us that they said Jesus incited the people to riot, that He told them not to pay their taxes, and that He fancied Himself a king in political opposition to Rome. Pilate remains unmoved. So Jesus' accusers repeat and strengthen their third charge. Jesus they say stirs up the people (Luke 23:5).

Whilst these accusations come against Jesus Pilate is clearly observing the Lord. He is amazed that Jesus does not speak up and defend Himself. He clearly sees that Jesus is innocent of these things and that the charges are both unfair and unjust. He therefore wants Jesus to respond to His accusers. This is because Roman law followed a three stage process. First came the presentation of the charges, this was followed by the response of the accused. The trial concluded with the judge making a decision on the case.

The Lord Jesus however is not "following the rules." He is not responding to the charges against Him. In stating this Mark is again reminding us of the suffering servant as prophesied in Isaiah (Isa 53).

It is at this point in the proceedings that Pilate learns that Jesus was a Galilean. Let me read what happens as recorded by Luke.

**6 When Pilate heard of Galilee, he asked if the Man were a Galilean. 7 And as soon as he knew that He belonged to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to Herod, who was also in Jerusalem at that time. (Luke 23:6-7)**

Only Luke records this incident. It is at this point that this first stage of the civil trial comes to an end. The Lord Jesus is sent to Herod Antipas who ruled over the region of Galilee. This would be stage 5, the second civil trial before Herod. Following this Jesus was returned to Pilate for the sixth and final trial. For times sake I won't mention what happened during Jesus' encounter with Herod. Suffice to say that Pilate thought he could avoid making a decision by sending Jesus to Herod. Let him decide Jesus' fate. However this was not how things played out, Herod sent Jesus back after mocking Him (Luke 23:11). We will now move on to see what happens when Jesus returns to stand once again before Pilate.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3 대제사장들이 갖가지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하자 4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변명도 없는가?” 하고 물었다. 5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민사 재판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재판의 4-6 단계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 재판이 어디서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속주 수도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북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헤롯 대왕의 궁전이나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이들 장소 중 한 곳에서 열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산헤드린이 예수에 관해 제기한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 통치자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 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도 손사래를 치며 무시했을 것입니다. 로마인으로서는 그는 신이 많다고 믿었는데, 누군가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란 혐의로 데려간다면 빌라도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에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반역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분명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군대의 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셨지만 유보적인 ‘그렇다 **It is as you say**’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했지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 답하셨다면, 빌라도는 즉시 예수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선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한적인 대답인 “그렇다 **It is as you say**”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검토해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권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이 반역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렸습니다(요한복음 18:34-38). 그분이 황제에게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자신들의 주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합니다. 누가복음(23:2)은 예수께서 백성을 선동하여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였고 자신이 로마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의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비난을 반복하고 보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비난합니다(눅 23:5).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비난이 진행되는 동안 빌라도는 분명히 주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 결백하시며 그 혐의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법은 3 단계 과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혐의가 제시된 후 피고인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과정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는 이사야서(사 53 장)에 예언된 고난 받는 종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시점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6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누가복음 23:6-7)**

오직 누가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첫번째 민사재판이 종료됩니다. 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민사 재판으로 헤롯 앞에서 열리고 예수와 관련된 전체 재판의 다섯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 빌라도에게 다시 되돌아가십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헤롯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면 자기가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은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한 뒤 돌려보냈습니다(누가복음 23:11). 이제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다시 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Now at the feast he was accustomed to releasing one prisoner to them, whomever they requested. 7 And there was one named Barabbas, who was chained with his fellow rebels; they had committed murder in the rebellion.**

Following His time before Herod Jesus is now back in front of Pilate. It was apparently a Greek and Roman custom to release prisoners on birthdays of rulers and festive occasions. This act of pardoning people is still practised around the world today. This tradition is not well documented as occurring in Israel but there is a vague reference to it in the Mishnah Pesachim, written between 190 and 230 AD. It was a way for the Romans to conciliate with an occupied people. It was a visible way for them to show that they did possess some mercy. Look, we will release a prisoner of your choosing. See how merciful and caring we are.

Pilate recognised that Jesus was an innocent man. He saw no basis in the charges levelled against Him. Luke records him as saying the following,

**14... “You have brought this Man to me, as one who misleads the people. And indeed, having examined Him in your presence, I have found no fault in this Man concerning those things of which you accuse Him. (Luke 23:14)**

So in this custom of releasing a convicted man Pilate sees a way out of his dilemma. He can legitimately release an innocent man and not be seen as weak or indecisive.

Pilate will offer the crowd a choice. Who would they like to see be set free? The choice is between the Lord Jesus, a sinless and perfectly innocent man and a man named Barabbas. Barabbas was not an innocent man. He was a rebel leader, a freedom fighter who had fought an uprising against Rome. He had also committed robbery, and murder probably as part of his "insurrection." Surely they'd pick Jesus. What Pilate had failed to appreciate was that to the Jewish people Barabbas was seen as a “folk hero” someone akin to Robin Hood. Pilate had forgotten that a person who fought against Rome was always likely to win the support of the common people. Let us read on and see what happens.

**6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7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 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헤롯을 만난 이후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통치자의 생일이나 축제 행사에 죄수들을 석방하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면하는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는 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서기 190 년에서 230 년 사이에 쓰여진 미쉬나 페사킴(Mishna P

esachim)에 이에 대한 막연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이 점령당한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자비가 있음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너희들이 선택한 죄수를 석방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비롭고 너희를 배려하는 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비난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누가복음 23:14)**

빌라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석방하는 관습을 이용하여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무고하다고 믿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석방할 수 있고 그 자신은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들은 누가 석방되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죄 없고 완벽하게 결백하신 주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무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이자 자유를 위해 싸운 투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반란"의 일환으로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 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알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는 로빈 훗과 비슷한 "대중 영웅"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 맞서 싸운 사람은 언제나 대중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8 Then the multitude, crying aloud, began to ask *him to do* just as he had always done for them. 9 But Pilate answered them, saying,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the King of the Jews?" 10 For he knew that the chief priests had handed Him over because of envy.**

This is the first mention of a crowd of people. Who were these people and why had they come on this occasion? Clearly they were there to demand or witness the pardoning of a convicted person that traditionally took place at this time. The implication seems to be that they had gathered to demand the release of Barabbas. We know this because they loudly demand, **ask him to do** for them what has become the custom.

Pilate asks this mob if they want him to release Jesus, the King of the Jews. The question we may have at this point is whether Pilate is speaking sarcastically. Is he just mocking the crowd, or being serious in offering them not a rebel but a king? Pilate for all his failings was no fool, he could see through the scheming manipulation of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He knew these men were not really loyal to Rome and were not really worried about treason. He understood that the chief priests had handed Jesus over simply because of envy.

All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had reason to envy Jesus. Especially aggravating to this prideful group of men is the fact that the common people considered Jesus to be a great teacher. How galling for this elite, highly educated and privileged class of men. That an itinerant, homeless travelling preacher had more authority and power than them. Worse still is that He had what they would never manage to attain; God's love and approval. This is really why they hated Him and wanted Him gone.

So Pilate is clearly expecting the Jewish crowd to see what he sees; that Jesus has been set up by the wicked Jewish leaders and to affirm him in setting Jesus free.

Let us continue.

8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다.

이것은 군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 행해졌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면을 요구하거나 목격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전례대로 **석방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빌라도가 말을 비꼬아서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가 단지 군중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지하게 그들에게 반란자가 아니라 왕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그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반역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단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은 모두 예수를 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교만한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대중들이 예수를 위대한 선생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특권을 누리는 이 상류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집 없이 떠돌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들보다 더 많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예수님은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자신이 아는 것, 즉 예수님이 사악한 지도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군중들도 알기를 원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에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11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so that he should rather release Barabbas to them. 12 Pilate answered and said to them again, “What then do you want me to do *with Him* whom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13 So they cried out again, “Crucify Him!”**

**14 Then Pilate said to them,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cried out all the more, “Crucify Him!”**

The chief priests have no intention of letting Jesus get away. They are fearful that there may be some of His followers among the crowd. Therefore they circulate through the people and encourage them to support Barabbas. This they do. As far as the crowd was concerned, the equation was simple. The Sanhedrin, their leaders said that Jesus should die. They said nothing about Barabbas. Rome, their sworn enemies said Jesus should be set free and Barabbas be executed. The people were always likely to side with the Sanhedrin as opposed to the Roman governor.

Pilates' plan has badly backfired. His wife had warned him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righteous man,” (Matt. 27:19) and he personally wanted to free this innocent man. But the mob has shouted him down. Pontius Pilate is often, quite rightly criticized for being an inept governor. He is also, again quite rightly held up as being a weak man and a moral coward. However, he should not be dismissed as being a foolish or stupid man. The sarcasm and artistry of

his words here are quite exquisite. You see by repeatedly using the term "King of the Jews" He is deliberately sneering at the people of Israel. He is mocking them for holding up a fatherless, itinerant teacher from Galilee as their king.

He puts the question to the crowd, **“What then do you want me to do with Him whom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What kind of a judge or leader is this? What judge in a court room asks the accusers what decision he should render? The whole purpose of a judge is that he or she is an impartial assessor of the facts. So we should rightly condemn Pilate for pandering to the people and not leading and guiding them as he should. He was more worried about his reputation and position if an insurrection broke out.

However Pilate is not alone in his guilt. Listen to what the people scream in response to his question; **“Crucify Him!”**

What a tragic and heart-rending transformation in these people. Just five days before as Jesus rode in triumph into Jerusalem on a donkey what did they shout? They shouted “Hosanna!” and placed palm branches in Jesus’s path (Mark 11:8–10). Now they are screaming that this same person be brutally executed.

Pilate too seems to be shocked at their naked and raw anger. What has this man done to deserve this kind of response? To be hung on a cross to die was a horror fit only for truly evil and wicked men. What had Jesus done to warrant such a death? When Pilate questions them as to why they are shouting for Jesus's death they just scream back louder, “Crucify Him.” Let us turn now and see how this trial ends.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였다.**12**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찌란 말이오?” **13**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4**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바라바를 지지하라고 독촉합니다. 군중들은 그렇게 합니다. 군중에 관한 한 방정식은 간단했습니다. 산헤드린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가 예수는 석방하고 바라바를 처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로마 총독을 반대하고 산헤드린의 편을 들었습니다.

빌라도의 계획은 심하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저 의로운 사람”(마태복음 27:19)과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는 개인적으로 이 무죄한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은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무능한 총독이라는 이유로 종종 비판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다시 한 번 무력한 도덕적 겁쟁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의 말의 풍자와 예술성은 매우 절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의 아버지도 없고 떠돌아 다니는 선생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뭐 이런 재판장 또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법정에서 어떤 판사가 고소인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묻습니까? 판사가 있는 목적은 사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영합하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함에도 그렇

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평판과 지위가 위협해질까봐 그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빌라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변화입니까? 불과 5 일 전,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무엇이래 외쳤습니까?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놓았습니다(마가복음 11:8~10). 이제 그들은 그분을 잔인하게 처형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들의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분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어쨌길래 이런 반응을 받는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말 악하고 사악한 자들에게만 합당한 공포인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 죽음을 맞아야 한단 말인가?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 So Pilate, wanting to gratify the crowd, released Barabbas to them; and he delivered Jesus, after he had scourged Him, to be crucified.**

Three times Pilate hopes to free Jesus (verses 9, 12, 14). On each occasion the clamour of the people for Jesus's death becomes more strident. Pilate wants neither to kill an innocent man, nor to give in to the demands of the despised Jewish leaders. But the people are insistent. Pilate however sees in this situation an opportunity to gain popular support. This sadly overrode his sense of justice.

The people he thought would warm to him because he gave them what they wanted. How often leaders fall into this trap. Embracing the idea that being actually being weak and giving the people what they think they want will get them onside.

So Pilate has Jesus scourged. This seems to have been done in the presence of the crowd. Perhaps he hoped that this most brutal of punishments would sate their lust for blood.

I'm a very squeamish person. I can't watch TV show or movies that are gory or excessively bloody. If a particularly brutal scene comes on I have to turn away. I can't even watch scenes in which human or animal surgeries are shown. So there's no way I could have witnessed a scourging. You'd need a strong stomach to be able to endure this brutal form of punishment. Let me tell you what a scourging entailed. I'm going to be quite graphic because you need to hear it. You need to know what Jesus endured for sinners like you and me.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9, 12, 14 절). 그 때마다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빌라도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경멸스러운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을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 생각이 슬프게도 그의 정의감을 억눌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함정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요. 실제로 약해져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

공하면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 군중들의 피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합니다. 잔혹하거나 피가 많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전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 장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 채찍질을 결코 눈 뜨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잔인한 형태의 처벌을 견딜 수 있으려면 비위가 정말 좋아야 합니다. 채찍의 형벌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매우 생생하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어떤 고통을 참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How did the Romans scourge their prisoners? The prisoner would be stripped and led to a wooden post or stake driven into the ground. Their arms would be lifted up and secured to the post. In most cases two soldiers known as *lictors* would be tasked with carrying out the whipping. They would strike alternatively from different positions. If one soldier was striking alone he would shift his position before each strike. The whip that was used was known as the *flagrum*. It consisted of a wooden or leather handle to which leather strips or thongs were attached. These in themselves would have caused extreme pain. But this wasn't enough for the Roman. So they attached shards of metal, metal balls, pieces of stone or animal bone to the leather strips. You can imagine the damage these strips did to the human body. At each blow the skin was first cut, then shredded. As the flogging continued, the lacerations would tear into the underlying skeletal muscles and produce quivering ribbons of bleeding flesh. Jack Finegan very eloquently conveys the true horror.

*"At first the heavy thongs cut through the skin only. Then, as the blows continue, they cut deeper into the subcutaneous tissues, producing first an oozing of blood from the capillaries and veins of the skin, and finally spurting arterial bleeding from vessels in the underlying muscles. Finally, the skin of the back is hanging in long ribbons and the entire area is an unrecognizable mass of torn, bleeding tissue."* (Jack Finegan, *Light from the Ancient Past* p.320)

The intense pain and blood loss often led to circulatory shock. It was not uncommon for victims to die whilst being scourged. Often, but not always victims were scourged prior to being crucified. The thinking was that a good scourging would hasten their time of dying on the cross.

I give you that lengthy description because I want you to know part of what the Lord Jesus Christ endured for you.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move on to the ultimate horror; our Lord's death by crucifixion.

로마인들은 죄수들을 어떻게 채찍질했습니까? 죄수의 옷을 벗기고 땅에 고정시킨 나무 기둥이나 말뚝으로 끌고갑니다. 그들의 팔을 올려 기둥에 고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릭터(Lictor)라고 불리는 두 명의 군인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교대로 내려칩니다. 한 명의 군인이 채찍질을 하면 그는 치기 전에 매번 자신의 위치를 바꿀 것입니다. 플라그럼(flagrum)이라는 채찍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죽으로 된 끈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 또는 가죽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죽 끈에 금속 조각, 금속 공, 돌 조각 또는 동물 뼈를 붙였습니다. 이 끈이 몸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매번 채찍으로 칠 때마다 피부가 찢기고 뜯겨졌습니다. 채찍질이 계속됨에 따라 피부 아래 골격근이 찢기고 리본 모양의 피흘리는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Jack Finegan은 진정한 공포를 매우 설득력있게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가죽끈이 피부를 찢는다. 그러다가 계속 타격을 가하면 피부 아래 조직들이 찢겨 모세혈관과 피부 정맥으로부터 혈액이 흘러나오고, 이 후에 피하조직 아래에 있는 근육의 동맥 혈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 마지막으로 등의 피부가 긴 리본 모양으로 매달려 있고 등 전체가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된다.” (Jack Finegan, Light from the Ancient Past p.320)

극심한 통증과 출혈로 인해 종종 순환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하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견디셔야 했던 일의 일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번에는 궁극적인 공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1 Your place in the story**

It's easy for us, removed as we are by time and culture to read the account of our Lord's trials, humiliation and torture and take a simplistic understanding of those involved. The Jewish leaders were evil and wicked men. They were envious of Jesus and saw Him as threat to their positions of power and authority. There was no way that they were going to treat Jesus fairly.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was a weak and indecisive man. He was more concerned about keeping the peace and trying to win friends than with doing what was right. Herod Antipas was a wicked man. He was more interested in seeing if Jesus could perform a miracle for him than in genuinely seeking the truth. These things are all true. They cannot be disputed.

But there is another person included in this story who is just as evil and wicked. That person is you. And do you know who played your role in this story? It was Barabbas. You my friends are Barabbas. That rebellious, thieving murderer is you. Now you might object, Pastor I'm not rebellious. Are you sure? Do you follow God's commands and will for you life in all areas? If you don't that makes you a rebel. Pastor I'm not a thief. Really! Have you ever taken something that did not belong to you, no matter how big or small? That makes you a thief. Pastor, I'm definitely not a murderer. Did you ever wish someone harm, or think negative hateful thought about them? That makes you a murderer. Hello Barabbas. He was deserving of death and so were you.

But he was pardoned. He was allowed to go free from the punishment he rightly deserved because Jesus took his place. Jesus also took your place. When He was whipped, tortured and then nailed to a cross He was carrying your sins upon His back. He did this for you because He loved you. He offers to do this for all people. To accept this free gift all it requires is that you go to God and confess that you are a sinner. You must then repent or turn from your life of sin. You must then put y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alone. If you have not done that. Do not delay.

시간과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므로 우리 주님의 시련, 굴욕, 고문에 관한 기록을 읽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악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그분을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정하게 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악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고 친구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헤롯 안티파스토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찾는 것보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그들과 똑같이 악하고 사악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당신의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라바였습니다. 당신은 바라바입니다. 그 반항적이고 도둑질하는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반항적이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당신은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반항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크든 작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도둑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살인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거나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증오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바라바스. 그 자는 죽어 마땅했고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도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안하십니다.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 **2 Let's not be like Pilate**

Pontius Pilate makes a brief and yet memorable appearance in Scripture. He is remembered as one of the bible's great villains. He presents us with a tragic case study. A wonderful example of how not to behave. We see that he ignored his conscience, he disregarded the good advice of his wife, he chose political expediency over what was right and just, and he failed to recognize the truth even when Truth was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He had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available to him, and yet he still made bad choices. Let's not be like Pilate.

We have full and complete access to God's revelation. We can see what God wants, we know what we are supposed to do and what He has a right to demand from us. Just like Pilate we might try to prevaricate or argue over these things. We might try to justify our thinking or invent excuses. I'm sure Pilate tried to rationalise what he did too. Well, Jesus is an innocent man, but if I don't give this crowd what they want a riot might break out. A riot might result in many deaths and the emperor looking unfavourably upon me. Better to just give the crowd what they want.

Often as we know to do the right thing comes at a cost. To go against the crowd comes at a price. Depending on our circumstances or what is at stake we may suffer for our love of Christ. It might be easier to be like Pilate, and just go along with the crowd. It might be easier to hush the inner urging of the Holy Spirit. But this would be wrong. Let us strive in our Christian lives to always do, say and think what we know to be right, no matter the cost.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 짧지만 기억에 남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의 악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비극적인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무시했고, 아내의 좋은 충고를 무시했으며, 선과 정의보다 정치적 편의를 선택했고, 진리가 눈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아보

지 못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었지만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우리도 이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변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글쎄, 예수는 무고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군중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 폭동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황제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거야. 군중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더 낫겠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데에 종종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중에 맞서려면 대가가 따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군중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촉구를 잠재우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항상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노력합시다.

